

제9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타지크 국립 상업대	성명	한글	미르조알리에프 후쉬누드	생년월일	1993 년 07 월 18 일
	영문	Tajik State Commerce University		영문	Mirzoealiev Khushnud	학년	5학년

100

200

300

400

500

"진정한 행복"

문득 얼굴 한 쪽이 일그러진 채 때
일 내가 오기를 기다리던 아이가 생각
난다. 웃음이 참 예쁜 아이였다. 머리를
때부터 땀 아렸던 그 아이는 부모도 땀
민이였다. 형편이 어려워져서 머리를 때부
터 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
다고 한다. 그러나 화상이 그 아이의
미소까지 지는 없애지 못했다.

그 아이와의 만남은 3년 전이었다.
한국에서 시각 장애 학교 학생들에게
음악 수업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왔
다.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
그냥 한국 사감들을 위해 통역하는 것
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갔다. 그들이
불쌍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위해 무엇인
가 할까 고민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
생각했다. 그리고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
치기 위해 오는 한국 선생님들도 이해
할 수가 없었다. 이렇게 더운 여름에...
하긴 그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궁금
해가는데 했다. 나는 단지 통역하면서 그
동안 배운 내 한국 어 실력을 뽐내고
싶어서 캠프에 참가했다.

캠프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밀이 터지

제9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100

200

300

400

500

기 시작했다. 캠프는 일주일 동안 진행
 되었다. 시각 장애인이라서 보이지 않
 아 넘어지고 다치고 소리를 거르면서 부끄
 러움이 없는 아이들이 싫었다. 피리를
 나누어 주면 잃어버리고 다음 날 와서
 새로운 피리를 달라고 하면서 귀가 마
 플 정도 시끄럽게 떠들었다. 둘째 날
 더 이상 피리는 없는데 그 아이가 내
 옷을 잡고 "피리 주세요 피리" 라고 했
 다. 나는 화가 나서 "너 어제 내가 줬
 잖아" 하며 가라고 소리 쳤다. 갑자기
 그 아이는 정말 세상이 두너저는 것 처
 럼 큰 소리로 물기 시작했다. 나는 너
 무나 귀찮아서 내가 피리를 얻은 귀
 버렸다. '다신 오지마' 라고 다짐을 받
 았다. "고마워요" 라고 하면서 벽을 더
 듬거리며 교실을 빠져 나갔다. 그 아이
 는 정말 캠프 내내 다시는 나타나지
 않았다.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다. 그렇게
 정신 없이 하루 하루가 지나갔다. 에머
 쿨도 없는 곳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최
 선을 다해 음악을 가르치는 그 사감들
 이 경이로운 뿐이었다.
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. 한국에서
 모신 선생님들과 시각 장애 학생들이

제9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100

200

300

400

500

같이 공연을 준비했다. 음악회가 시작되
 라 아이들이 자기 순서에 맞춰 악기를
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. 음악회가 거의
 끝날 즈음 '과당' 하는 소리와 함께 그
 아이가 교실로 뛰어 들어왔다. "나도
 한번 하게 해 주세요" 라고 했다. 그
 순간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놀라
 모두 그 아이를 쳐다봤다. 그 아이는
 그냥 그 자리에 서서 '아리랑' 을 피리
 로 연주하기 시작했다. 그 때 아리랑을
 불던 그 아이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
 수가 없다. 너무나 기쁜 얼굴이었다. 교
 실 안은 조용했다. 한국 선생님 몇 분
 이 물고 떼었다. 그 애의 연주는 나에
 게도 기쁜 감동을 주었다. 혼자서 편곡
 된 아리랑 전곡을 다 연주했다. 캠프
 내내 음악을 귀로만 들던 그 애는 혼
 라 연습한 것이 없다. 볼 수는 없었지만
 놀라운 음악적 재능이었다. 연주를 다친
 그 애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.
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
 기 시작했다. 나도 감동에 겨워 달려가
 그 아이를 안아 줬다. 그 때 그 애가
 내 귀에 대고 말했다. "선생님을 위해
 했어요" 라고 말이다. 그 것은 누구도

제9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.
 나는 깨달았다. 덕지로 던져 준 선물
 이 그 애에게 기쁨을 선사했다. 그러나
 내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애의
 음악이 나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
 큰 선물들 준 것이었다. 나의 시각에서
 는 내가 그 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
 이었다. 한 번도 그 애는 나에게 감동을
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
 다. 그러나 그 애가 나에게 서로의 마
 음을 말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비밀
 을 가르쳐 주었다. 사랑의 의미를 그
 아이를 통해서 배웠다. 나도 누군가에게
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
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. 늘
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모
 든 것을 나를 위해 해 왔다. 사랑하는
 가족에게도 그리고 캠프 봉사까지도...
 더운 여름에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
 것도 모르는 장애 아기를 위해 한
 국에서 온 선생님들의 마음도 알 것
 같았다. 그 일 이후 내가 무엇을 해야
 할지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다. 내가 줄
 아 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니라 누군
 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

제9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까를 생각하게 되었다. 그 것은 내가
 무엇을 하여 살지를 생각하게 해 준
 그 마이가 준 가장 큰 진정한 행복의
 선물이었다.

100

200

300

400

500